

현민 여러분께

4 월 23 일, 정부가 도쿄도, 교토부, 오사카부 및 효고현에 긴급사태선언을 발표하고, 또한, 새롭게 에히메현을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구역으로 공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의 기본적인 대처 방침이 변경되어 현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 기간은 2021 년 5 월 11 일까지입니다.

(도도부현을 넘는 이동)

1. 긴급사태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구역인 도쿄도, 교토부, 오사카부, 및 효고현과의 왕래를 삼가십시오.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구역인 미야기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에히메현 및 오키나와현과의 왕래를 삼가십시오.

또한, 홋카이도 삿포로시,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와카야마현, 가가와현, 후쿠오카현 등과 같이,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불요불급한 외출 자속을 요청하고 있는 지역과의 왕래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왕래를 삼가십시오.

단, 어쩔 수 없는 업무나 전근, 취업 활동, 장례, 병간호 등의 왕래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삼갈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한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

2.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5 가지 상황 (음주를 동반하는 모임 등, 집단이나 장시간에 걸친 회식, 마스크 없이 대화하기,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자리 이동)」에 주의하고, 계속해서

- (1) 「3 밀(密)」을 피할 것
- (2)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
- (3) 「마스크 착용」
- (4) 「손 씻기, 손가락 소독」 등,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열이나 감기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은, 절대 무리하지 말고, 업무나 학교는 쉬고, 외출을 삼가고, 우선 먼저 주치의나 「건강상담 콜센터」에 연락한 후, 조속히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각 직장에서도 직원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촉구하는 등, 건강 관리에 힘써 주십시오. 이것은 현민 여러분, 사업소 단위의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이용)

3. 음식점 이용에 대해서, 각 점포에서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지킬 것, 현민 여러분께도 대책을 지키고 있는 점포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의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1) 「현 외부 사람과의 식사」는, 음주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현 내에서도 현 외에서도 삼갈 것
- (2) 식사 시 인원수를 9 명 이하로 하고, 현 외부인과 식사하신 분이나, 현 외부인의 자택에서 숙박하신 분은, 2 주가 지날 때까지는 참가를 삼갈 것
- (3) 시간은 1 시간 30 분 정도로 할 것
- (4) 시즌이 다가오는 환영회 등은, 인사이드이나 채용으로 시마네현 외부에서 이동 등, 추가되는 인원이 있는 경우, 시마네현으로 온 뒤, 2 주가 지난 후에 실시할 것
- (5)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 ① 현 외에서도 이용을 삼갈 것
 - ② 현 내에서도 현 외부인과의 이용을 삼갈 것

단,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돗토리현」과 생활(통근, 쇼핑 등)권역에 속하는 「히로시마현 · 야마구치현」의 일부 지역은 현 내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충분한 환기 실시)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감염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실내 환경 (습도 40% 이상, 온도 등)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환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접촉 확인 애플리케이션 활용)

5. 후생노동성이 제공하고 있는 접촉확인 앱(COCA)을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활용 부탁드립니다.

(사업소의 접촉 줄이기 방안)

6. 사업소에서는 재택근무(텔레워크), 시차출근, 자전거 통근 등,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대책을 실시해 주십시오.

(비방 · 중상이나 차별 방지)

7. 감염자와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인터넷이나 SNS 에서 비방 · 중상, 소문 등은 엄숙히 삼가고, 현이나 시정촌 등 공적 기관이 발신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인권을 배려하는 냉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시마네현에서도 지금까지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관련된 점포 중,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점포에는 점포의 이해를 얻어, 점포명을 공개하여, 감염 우려가 있는 분께 알려, 폭넓게 PCR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점포 경영자들에게는 점포명 공개에 따른 소문으로 인한 피해, 구체적으로는 수익 감소 등에 의한 경영 악화를 각오하고, 현민 여러분에게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지한 협력과 이해를 받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점포에 대한 비방, 중상이나 분별력 없는 언동은 감염 확대를 조장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므로 엄중히 삼가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시마네현은 전국의 감염 상황 등을 주시하며, 국가나 다른 도도부현, 의료기관, 시정촌과 충분히 연계를 취하면서 감염 확대를 방지, 의료 제공 체제의 확보, 지역 경제의 회복에 전력으로 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26일

시마네현 지사 마루야마 다쓰야